(1989年5月11日 第3種 郵便物 (가)급 認可)

國 政 指 標
—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연다 —
1. 民族自尊
2. 民主和合
3. 均衡発展
4. 統一繁榮

국정신문

1992년 9월17일
제 193 호
週 刊 〈非賣品〉

發行人 孫柱煥 · 編輯人 李庚植 · 發行所 公報處 政府刊行物製作所 /우편번호 110-021 서울鍾路區 付岩洞 182-1 / 전화(02) 730-1031 · FAX 730-1034

UN/中國방문

北方정책 結實 극대화

盧대통령 가을外交일정 큰 기대

大統領職은 원래 엄청나게 바쁜 자리이다.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으로, 大統領은 국정 전반에 걸쳐 문자 그대로 萬機親覽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盧泰愚대통령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北方외교 마무리

일찌기 미국의 트루먼대통령이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모든 책임은 이 자리에서 끝난다"는 표어를 걸어 놓고 늘 자신의 막중한 책임을 다짐했다.

盧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아 준 대통령으로서 역사와 민족 앞에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기에 그 생활에는 餘念과 寧日이 없는 것이다.

盧대통령의 가을 外交일정은 중요한 뜻을 지닌다.

9월의 유엔 연설과 중국 공식방문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東北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10월의 콜 獨逸 총리의 우리나라 방문은 통일문제에 대한 귀중한 대화의 자리가 될 것이다.

재임중 39개국과 修交

또한 11월의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우리나라 방문은 東北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두 나라의 공동보조가 취해지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盧대통령은 北方政策의 마무리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돌이켜 보면, 盧대통령은 지난달의 韓·中修交로 재임기간에 무려 39개국과 수교한 셈이 되었다.

어느 나라 外交史에도 이러한 기록은 없을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활동무대는 5大洋 6大洲로 확장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 4强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우리 외교는 편향외교에서 벗어나 전방위외교를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개방 분위기 성숙

그 뿐 아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빠른 속도로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盧대통령이 모스크바의 문을 열고 北京의 문을 열 때의 궁극적 목표는 平壤의 문을 열자는 데 있다.

꼭 그러한 우회전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것과 병행하여 南北對話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北韓이 종당에는 개방과 협력의 길에 들어서도록 분위기를 성숙시키고 있는 것이다.

盧대통령이 전방위외교 지향과 함께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경제이다.

사실 盧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안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두배로 늘리는 데 성공한 지도자다.

국민총생산과 1인당 소득이 모두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뿐인가.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있기는 했으나, 주택 2백만호를 새로 짓겠다는 공약을 이미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택혁명을 이룩하기도 했다.

盧대통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초를 단단히 다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는 政治圈에 맡기고 경제에 전념하겠다"는 年頭 기자회견에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경제부서들을 독려하면서 국민경제 전반을 일일이 챙기고 있는 것이다.

경제와 관련하여, 盧대통령이 가장 주의 깊게 챙기는 분야가 物價이다.

특히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는 日日報告를 받다시피하고 있다.

國政운영 성실 이행

주택가격의 동향과 토지가격의 동향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가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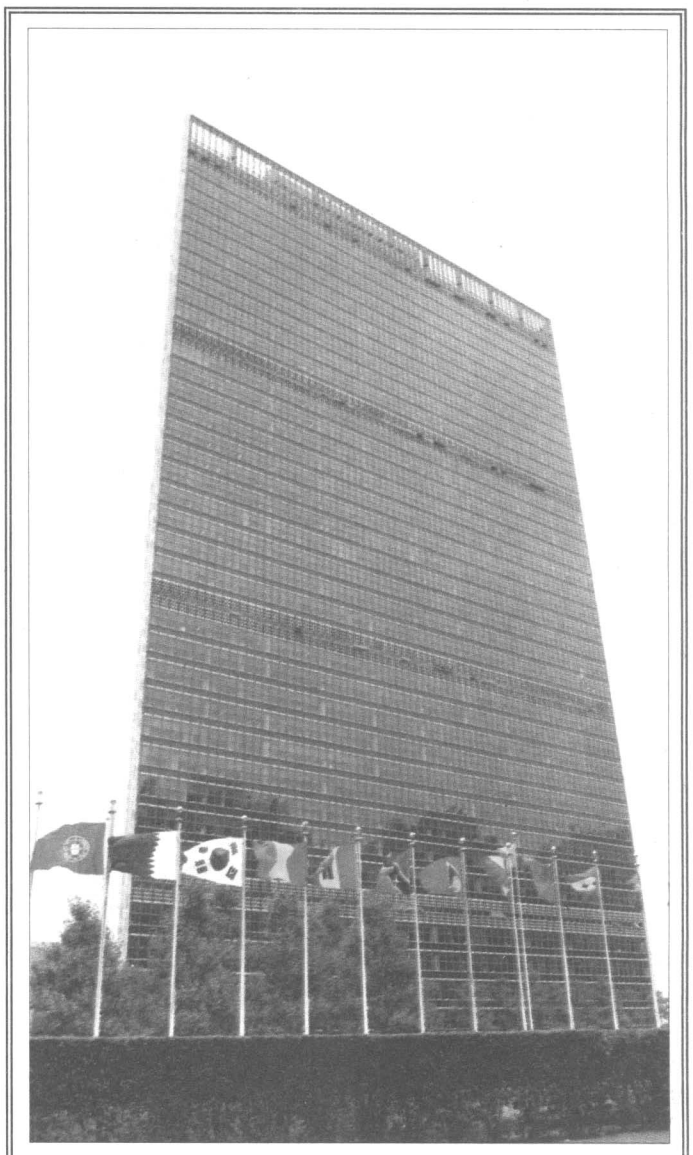
수출입의 동향도 盧대통령이 직접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차적 관심 분야이다.

자유무역의 시대인만큼 지난날처럼 수입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크다.

그러나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경제의 內實化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뜻에서임은 물론이다.

이처럼 盧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잠시의 흐트러짐 없이 국정 전반을 충실히 이끌 것이다.

盧대통령의 매우 바쁜 24시는 임기를 마무리짓는 시기라 하여 국정에 공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유엔 加入 1주년 17일 우리나라는 UN가입 첫돌을 맞았다. 세계 평화를 위한 UN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盧泰愚대통령은 오는 20일 UN을 방문, 세계 頂上들과 만나 한반도 통일문제와 東北亞안정 등 국제적인 주요 현안들을 논의한다.

콜, 옐친등 잇단訪韓 頂上외교 러시

先進國 수준 經濟기반 조성에 최선

紙面안내

盧대통령 訪中에 거는 中國人들의 기대 3면
내고장 멋을 살린다 - 濟州道篇 4면
統一이란 어휘에 낭만은 禁物 7면

「寄生火山」型 曲線지붕건물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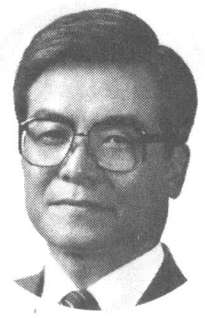
내고장 멋을 살리다

가로樹種·건축조형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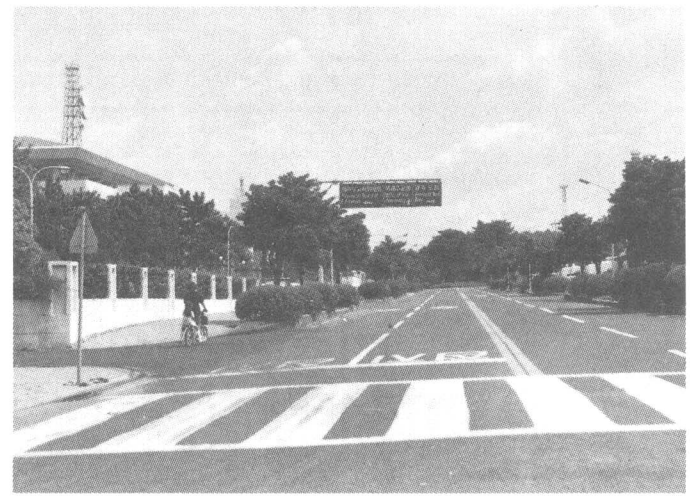
〈1〉

삼천리 금수강산. 天惠의 자연속에 살아온 한국인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無色無臭의 획일화된 환경변화에 同化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이를 보다못한 사회 일각에선 우리것을 찾자는 운동이 서서히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당국에서도 나무와 지붕모양을 지역특성에 알맞게 바꾸어 나가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보는 이를 계기로 이들 개량사업계획을 지역별로 연재키로 한다. 〔편집자 註〕

제주도



禹 瑾 敏
濟州道知事



◇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앞 文淵路일대의 후박나무 가로수. 道內곳곳에 식재된 이들 고유수종 가로수들은 제주도를 한층 더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의 본토와 다른 가족제도와 생활관습 등으로 인해 독특한 文化的 지역성을 이루어 왔다.

섬특성 살린 독특한 문화

그래서 제주文化의 특성은 기후와 풍토 등 자연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지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지역적특성은 住居문화와 가로수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주도의 전통민가는 草家로 1년에 몇차례씩 불어오는 태풍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독특한 양식을 취한다.

이 草家가 본토의 전통주거와 가장 뚜렷하게 차이나는 점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求心的 배치와 철저한 벌통배치의 형식을 들 수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대가족이나 실은 核가족인 특이한 가족제도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진 '안·밖거리형 주거패턴'이라는 점이다.

이는 무속적 사고와 풍수지리의 영향, 기후적 요구, 제주도 도민들의 자립정신에 기인하고 있다.

건축재료도 주변에 널려 있는 새(띠), 흙과 나무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료는 防濕효과가 클 뿐아니라 여름철에는 뜨거운 태양輻射熱을 차단시켜 시원하게 하고 겨울철에는 열용량이 큰 흙벽으로 시간 지연효과를 가져와 따뜻한 실내환경을 유지해 왔다.

특히 草家지붕을 잇는 새(띠)를 얻기 위하여 '새왓'이라는 밭을 공동으로 관리해 왔는데 이 '새왓'은 산간지대의 토심(土深)이 얕은 한정된 곳에서만 재배됨으로써 주민들은 共同으로 이 땅을 개간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共同體의식을 함양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본토 발전의 도약기였던 1970년대 초 전국적으로 점화된 새마을운동의 기운과 제주도의 건축재료가 과거 현무암, 새(띠)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바뀌면서 제주人의 삶의 양식을 지배해왔던 전통초가도 점차 소멸돼 현재 道 전체가옥의 18.7%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나는 제주도지사로 부임한 이후 건축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西歐化 또는 高層化 劃一化 되는 것을 보고 새롭게 개발되는 구조재 치장재 단열재 방수재 등은 필수적이라고 해도 인근 '오름(기생화산)'을 닮은 草家지붕 형태의 曲線美는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관계 전문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근 본토의 건축인들의 '제주도 住居 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들의 애향심은 나의 이러한 뜻과 부합돼 현재 신축되고 있는 건물의 지붕형태가 전통초가형태로 복고되고 있음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진다.

가족제도 부합되는 안·밖거리식 住居형태
海風잘견디는 해송등 가로수 5種 75%

그 대표적인 예로 88년에 완공된 民俗자연사 박물관과 현재 신축중인 서귀포市廳舍 등의 관공서를 비롯 일반주택에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아늑하고 평화로운 제주도 향토성 조형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이는 제주人의 얼을 잇는 일이기도 하다.

街路樹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제주도에 가로수가 심어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서귀면(현재 西歸浦市)에서 각 마을의 실정에 맞게 전개된 1가구1그루 나무심기운동과 맥락을 같이한다.

일반주택까지 초가형태 복고

이때 서귀포市의 신효마을 주민들은 一周도로변에 왕벚 5백그루를 植栽하여 벚꽃거리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주도 가로수 植栽의 효시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기후는 근해에 흐르는 난류의 영향으로 따뜻한 해양성이지만 한라산의 영향으로 일기변화가 심하여 海風에 잘 견디는 수종을 선택해야만 했다.

흔히 제주도를 '태풍의 길목'이라고도 말하지만 풍속 10m/초 이상의 폭풍일수가 연간 1백14일 이상이나 된다는 사실은 웬만한 樹種은 가로수로 선택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1950년대에는 해풍에 비교적 강한 아카시아 플라타너스 포플러 은행나무 등을 식재하기도 했으나 1970년대 이후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自生수종을 심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어 이들 외래수종을 베어내고 제주도의 고유수종으로 대체했는데 지난 6월말 현재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종은 26종에 3만5천여그루에 이른다.

公園속 제주도만들기 한창

이를 수종별로 보면 구실잣밤나무가 18.5%인 6천5백그루이고 해송 후박나무 왕벚나무 협죽도 등은 제주도의 5대 가로수 식재수종으로서 전체의 7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가로수들은 제주도의 기후와 풍토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가로수가 20여년을 자라다 보니, 식재 간격이 10m내외로 密着되어 있음은 물론 樹高가 높아지고 樹冠이 확장되면서 수려한 관광요소중의 하나인 자연경관의 眺望을 가리는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다.

또 道 전역에 협죽도 해송등이 식재돼 市·郡별 특성이 없어져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이다.

이에 금년 2월 수종의 선성이나 식재방법이 잘못된 곳과 한라산의 4계절 변화와 해안절경을 가로막는 遮蔽수종을 정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과감한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가급적 바다쪽으로는 가로수를 심지 않고 이동중에도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一周도로변이나 도심지 공터에 우리 고유의 나무를 심기 위한 소공원 조성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87개소 12만7천여㎡의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公園속의 제주도'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도민들의 애향심이 뜨겁다.

주간 國政메모

韓中 체육교류협정 추진 체육청소년부

체육청소년부는 14일 올하반기중 韓中 두나라간의 체육인 교류와 상호전지훈련 스포츠과학정보 및 자료교환을 주내용으로 하는 체육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 발표 상공부

상공부는 14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을 발표, 96년까지 철강 석유화학 등 7개업종의 에너지원단위(단위생산량당 에너지투입량)와 자동차, 가전제품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최고 38.1%까지 개선키로 했다.

추석절교통사고 작년比 줄어 경찰청

경찰청은 14일 추석절 귀성객 특별수송기간(9일~13일)동안 전국적으로 모두 3천8백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사망은 1백94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사망은 31.9%) 감소했으며 범죄발생도 전년 동기대비 26.5% 줄었다고 발표했다.

不法漁業 일제단속기간 정해 수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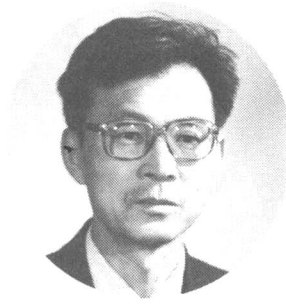
수산청은 15일 오는 10월을 不法漁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경과 협조하여 전국 항포구와 불법어업이 심한 해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經濟발전경험 傳授해줄 좋은 친구"

合作·교류통해 中國의 잠재력 자극 기대

盧대통령 訪中에 거는 中國人들의 기대

특별寄稿



韓 國 善
北京 民族出版社 主任
·'民族團結' 誌 主筆

韓中수교가 공식발표된 1992년 8월24일은 韓中관계사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날이다.

이로부터 韓中 두나라의 미수교상태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청산되고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펼쳐졌다.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中國의 한 공민인 나는 더없는 기쁜 심정으로 韓中수교를 열렬히 축하한다.

中國대륙과 한반도는 유사이래 4천여년간 말 그대로 脣齒의 관계였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인접국이었음은 물론이지만 漢字文化圈 중에서도 정치적 지배이데올로기를 공유하면서 유구한 세월 동안 輔車相依해 온 나라는 中國과 韓國밖에 없다.

2차대전 이후 40여년간 두나라가 적대시 외면해 온 것은 실로 입술과 이가 상치, 상쟁하는 것 이상으로 부자연스런 것이었다.

지난 8월24일 역사적인 韓中수교는 서로 어긋난 이와 입술이 제자리를 찾아 東北 아시아의 면모를 바로잡는 일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楊尙昆 中國 국가주석도 "中·韓 두 나라 인민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분야, 특히 문화면에서는 동질성을 공유해 왔다. 나는 中·韓간의 수교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한 바 있다.

근래 盧泰愚대통령의 北京방문을 앞두고 中國대륙에는 韓國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한국어 학습반 속속 개설

北京일대와 우리 朝鮮族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연변쪽은 물론이고 廣西, 濟南(山東) 威海쪽에 韓國語학습 속성반이 속속 개설되고 있고 내가 부교장을 맡고 있는 北京 조선어학교에도 中國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韓·中수교와 盧대통령의 中國방문을 계기로 中國人들의 韓國에 대한 관심이 급속 확산되고 있는 증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그간 中國과 韓國은 40여년간의 단절로 互相了解(상호이해)가 태부족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中國사람들은 韓國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정확한 정보에 접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내가 알기로는 2차대전 이후 韓國의 현대문학작품과 영화가 단 한편도 中國에 소개된 적이 없고 韓國예술단의 공연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

오직 한반도에 관한 한 北韓것 만을 접해왔기 때문에 北韓쪽의 시각만이 존재해 왔을 따름이다.

中國人들의 시야에 韓國이 처음 들어 온 것은 88서울올림픽 부터였다. 이후 中國의 개방정책이 시행되고 北京과 天津등지에 韓國의 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자동차'가 북경 시가지에 눈에 뜨이게 되고 韓國의 경제적 실력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고도의 선진기술 학습

이번의 韓·中수교를 계기로 中國은 우선 韓國이 이룩해 낸 경이적인 경제발전의 지혜와 경험을 학습하려 하고 있다.

韓國이 그간 이룬 성과가 中國의 현 경제발전단계로서는 가장 적절한 모범답안일 뿐 아니라 그 역작용과 시행착오까지 포함해서 경제 현대화의 전 과정과 경험을 가장 진솔하고 친절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친구로 韓國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은 기술의 숙련도와 자본의 집약도 면에서 中國을 상당히 앞서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中國은 광활한 국토와 막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남반부는 韓國이 고도의 기술과 자본, 경영기법을 십분 발휘하기에는 너무 좁은 감이 없지 않고 中國은 엄청난 잠재력에 비해서 기술수준이나 자본집약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韓國은 드넓은 中國대륙에서 그간 온축된 경제능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中國은 韓國과의 간단없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선진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이 제1의 합작국이 되는 데는 다른 선진국과의 경우 보다 훨씬 친밀한 분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구미열강 패권주의 견제

상호이익이 된다면 합작이든 교류든 양국간의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나 가능하다.

韓國이 中國인민의 잠재된 발전욕구를 자극하고 경제능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한다면 그것은 곧 한국기업의 시장개척을 의미할 수도 있다.

현재 中國은 현대 自由시장체제의 문턱에 와 있고 韓國은 선진국 대열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기존의 歐美블록으로 부터 심한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中國과 韓國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歐美列强의 지역적 인종적 패권주의에 밀려 동아시아 대륙은 세계 무대에서 밀려날 위험이 적지 않다.

비록 경제발전 단계상 상당한 수준 차가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러한 격차를 유무상통의 지혜로 활용한다면 韓·中 양국은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세계의 진운에 병렬해 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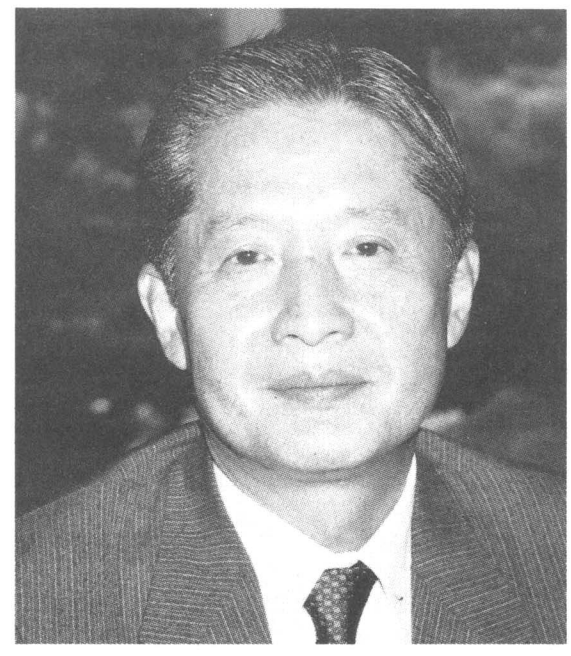
中國의 東北三省과 上海 廣東 등 태평양 연안지역은 특히 韓國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아무쪼록 中國의 上海 靑島 天津과 韓國의 仁川 群山 木浦 등 온화한 黃海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나라 항구 사이의 뱃길이 盧泰愚 대한민국 대통령의 中國방문을 계기로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고 순탄한 船路로 발전해 가기를 中國과 中國人民은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黃海, 세계제일의 번창한뱃길로 발전하길"

"韓半島 평화위한 구체적협의 있을듯"

韓中 정상회담관련 盧載源 駐中대사 인터뷰



◇盧載源 駐中대사는 盧泰愚대통령의 訪中에 대해 "남북한간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기반구축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貿易·航空협정 민간서 정부차원 전환 가능

"韓中수교는 양국간 외교의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발점입니다. 盧泰愚대통령의 이번 中國방문은 양국이 서로간의 협력을 다짐하고 장래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설정한다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오는 27일부터 3박4일간의 공식일정으로 이뤄질 盧대통령의 中國방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盧載源 駐中대사는 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南北韓간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韓半島의 항구적인 평화조건을 만드는 문제에 대한 협력논의가 이번 頂上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盧대통령의 訪中의의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韓中양국은 그간 민간협정으로 되어 있는 무역·투자보장·항공협정 등을 정부간 협정으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얻을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盧대사는 韓中수교이후 北韓의 태도변화 가능성과 관련 "北韓은 현재 국제정세의 정확한 양상을 주시하면서 기본외교노선 정비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이번 韓中 정상회담은 對外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결심을 앞당기는 요인이 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頂上회담의 요지는 평소엔 양국간 여러해 걸릴 여러가지 안건들을 한꺼번에 빠른 시일내 처리, 효율적으로 양국관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회담에 지나치게 성급한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盧대사는 盧대통령이 訪中시 만날 인사들에 대해 "정상회담은 楊尙昆국가주석과의 회담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그외에 李鵬총리, 江澤民당총서기와도 만나게 될 것"이라며 "中國의 최고실력자 鄧小平과의 만남은 그때의 형편에 따라 이뤄질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K〕

서울올림픽 4주년… 시민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88」의 成功 자원봉사로 일궈내

廣場

文 胎 甲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서울올림픽을 치른지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외국인들은 서울대회를 회상하며 激讚의 말을 잊지 않는다.

"올림픽운동이 서울올림픽에 진 빚은 너무도 크다"는 말과 함께 "서울올림픽은 스포츠의 축제속에 文化市民精神을 꽃피워 낸 또 하나의 축제였다" "서울올림픽은 韓國人들의 市民精神이 금메달을 딴 대회였다"는 이야기 들이다.

올림픽대회사상 가장 완벽

그러면서 "1988년 서울의 스타디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韓國人의 自信感과 矜持로 꽉 차 있었다"는 말도 꼭 덧붙인다.

이러한 서울대회에 대한 외국언론인들의 讚辭는 바르셀로나올림픽 기간에도 끊이지 않고 꽃피워졌다.

1988년 9월 실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다.

50억 지구촌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림픽대회 사상 가장 완벽한 대회의 연출도 연출이었거니와 이를 엮어 낸 찬란한 우리고유의 文化, 그리고 원숙된 우리들의 先進市民精神은 세계인들이 놀라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세계인들에게 우리는 東北亞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귀퉁이에 자리하는 가난한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만 기억되고 있었을 뿐이다.

겨우 한국동란에 참전했던 병사들이나 장삿일로 드나드는 외국상인들의 눈에 비쳐 전해진 우리의 모습은 전쟁과 가난 그리고 데모와 무질서로 얼룩진 바로 그것들 뿐이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때 온 세계에 비쳐진 우리의 참모습은 그러한 세계의 비뚤어진 시각과 사고를 말끔히 씻어 내지 않았던가.

그것은 7년이란 기나긴 서울올림픽 준비기간동안 우리모두가 하나되어 쏟았던 정성과 눈물겨운 노력 그리고 그속에서 우리가 갈고 닦아 찾아낸 우리 본래의 참모습 바로 그것이 세계로 하여금 우리들을 바로보게 했다.

당시 우리들은 서울대회준비를 단순한 체육인들만의 축제나 예술인들만의 한마당 잔치로 준비하지 않았다.

우리들의 대회준비는 文化的으로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으로 성숙된 社會建設이라는 先進創造의 궤도위에 맞춘 엄숙하고도 땀어린 준비였다.

이는 전세계를 향해 우리의 自尊을 찾고 지키려는 挑戰이었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같이 도시에서부터 농촌에까지 꼭두새벽부터 밤잠을 설쳐가며 온갖 힘과 지혜를 모았다.

농촌에서는 한시도 아쉬운 농사일마저 제쳐두고 집앞길을 꽃심어 단장하고 성화 봉송로를 깨끗이 가꿨다.

도시의 새벽거리에는 담배꽁초와 휴지를 줍고 찢어진 광고물로 얼룩져 있는 담벼락을 씻는 시민들의 손길이 바빴다.

도시미화로 손길 바빠

거리의 택시기사들은 차를 닦고 또 닦으며 차안을 응접실처럼 손질했으며 뒷골목의 식당들 또한 주방과 화장실을 깨끗이 가꾸는데 땀을 흘렸다.

어린이들은 학교길을 빗질하고 상인들은 시장길을 휴지 한 조각 없이 말끔이 가꾸었다.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도 國家的 행사에 아낌없이 땀방울을 보태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전국 곳곳에서는 아무리 바쁜길, 먼길이라도 마다하고 자가용 홀·짝수제 운영에 한마음이 되어 주었다.

혹시 홀·짝수제를 잊고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주위에 차들이 경적을 울려 '옐로우카드'를 제시하는 市民精神을 발휘하기도 했다.

비를 맞으면서도 운동장에서 열을 흐트리지 않았던 우리들의 어엿함 그리고 勝者에게 축하와 함께 敗者에게도 격려의 따뜻함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의 격높은 市民精神은 온 세계가 금메달을 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깨끗한거리·자가용2부제 온국민 협조

自信感·긍지 일관… 성숙된 民族底力 과시

때문에 아직도 세계는 그당시를 회상하며 "서울의 스타디움에서는 韓國人의 自信感과 矜持가 가득 찼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의 한 구석에 이런 문명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었다"고 감탄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끊이지 않는 讚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포스트올림픽이 채 가기도 전에 이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퇴색되고 사라져 가고 있음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너무도 값진 것들을 잃고 있다.

서울올림픽에서 얻은 우리민족의 가장 큰 勝利, 가장 값진 寶物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우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아무리 변혁기의 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나만이 편해 보겠다는 극단적 利己主義, 혼자만은 밑지지 않겠다는 무질서… 이러한 것들이 지난 10여년간 우리가 흘린땀과 정성의 결실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은 마음 아픈일이 아닐 수 없다.

「88」정신 밑거름 재도약 다짐

한마음이 되어 온갖 힘을 다해 쌓아 올린 跳躍의 징검다리를 우리가 허물고 우리가 모처럼 되찾은 우리의 自尊을 우리스스로 짓밟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외부로부터의 존경을 마다하고 차가운 경멸을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을 자초하고 있는 일은 너무도 서글플 뿐이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고, 하면 된다"고 다짐했던 자신감, "해 내고야 말았다"고 가슴벅찼던 矜持를 되찾아야 한다.

세계가 놀랐던 우리의 성숙한 市民精神을 다시 찾아 우리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영광된 이 시기를 지켜나가야 한다.

'自己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평범한 경구를 다시한번 우리모두들 가슴에 되새겨 자기비하적, 자포자기적 병폐를 과감히 떨쳐 버리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옷소매를 거둬 매고 거리의 휴지를 줍고 흙탕물의 담벼락을 씻는 대열에 나서자.

그래서 우리세대가 이룩한 88서울올림픽의 값진 文化市民精神을 되살려 다시한번 우리의 自尊을 드높이자.

가능성과 저력은 이번 바르셀로나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겠는가.

정부간행물

▲간행물명(판형·쪽수)/문의처(전화):내용順

통일원 ▲**남북경제교류협력 실무안내**(국판·482쪽)/교류협력국(736-7205):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제반절차와 북한의 무역제도 등을 소개.

문화부 ▲**북한의 언어정책**(4·6배판·250쪽)/국립국어연구원(269-9216):북한 언어정책의 바탕이 되고 있는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언어이론, 언어정책의 추진기관, 어문 규정의 변천, 현행어문규정, 신문과 방송언어 등을 수록.

공보처 ▲**세계가 지켜본 한국의 민주화**(크라운판·307쪽)/해외공보관(720-1541):6·29 선언 5주년을 맞아 세계의 언론과 지식인이 본 6·29 선언 평가자료집.

정무제2실 ▲**직장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 교재**(4·6배판·98쪽)/여성근로자 1백명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성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에게 상담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상담기법 등을 소개.

법제처 ▲**북한의 합영법제**(국판·403쪽)/법제관실(720-3632):북한의 합영법제와 그 관련법제 및 정책에 관한 내용을 소개.

농촌진흥청 ▲**1991년도 농촌진흥시험연구사업연보**(4·6배판·497쪽)/농촌진흥청 연구조성과(0331:292-4252):91년도에 수행된 농사시험연구사업의 주요결과, 생산 및 검정사업과 부록에 각종 연구사업의 참고자료를 수록.

민원행정 새바람 100일

지난 5월 盧泰愚대통령의 민원행정쇄신 지시 이후 1백일동안 일선 민원관련 공무원들이 실천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 각종 수범사례와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 등을 소개했다.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각급 기관에서 일선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민원행정 새바람운동의 구체적인 사례가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어 국민편의 위주로 행정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원행정쇄신대책협의회 刊(국판·121쪽)/국무총리행정조정실(734-8793).

경제

문답으로 알아보는 한국경제의 좌표 ⑮

▲ 중소기업의 당면애로 대책은.

— 최근 섬유 신발 등 경쟁력이 약화된 일부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체들의 부도가 발생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부도증가는 자금애로요인 이외에도 근본적으로는 고임금과 인력난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특히 부동산 등에 투자한 기업들이 도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한정된 자금이 중소기업부문에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면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선별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수출산업의 기초가 되고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지원, 인력난과 입지난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강화방안 등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음.

— 우리 경제가 조정기를 거치면서 향후 몇년간 감속성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당면애로가 지속될 수 있으나 정부는 보호위주의 단기지원을 강구하면서 동시에 90년대의 경제여건 변화에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중심의 육성정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임.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⑤

▲ 비목별(費目別) 연구개발비

— 비목별로 보면 경상비가 89년 대비 25.4% 증가한 2조1천1백68억원, 자본적 지출은 7.6% 증가한 1조9백37억원이었음. 이중 경상비에서는 인건비가 22.5% 증가한 1조7백24억원, 기타 경상비는 28.4% 증가한 1조4백44억원이었음.

◇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구 분	총 계	경상비			자본적지출			
		계	인건비	기타 경상비	계	기계·기구 장치 등	토지·건물 등	기타
연구개발비(억원)								
1988	23,474	14,219	7,559	6,661	9,255	6,117	1,931	1,207
1989	27,051	16,886	8,751	8,135	10,165	7,106	2,407	652
1990	32,105	21,168	10,724	10,444	10,937	7,142	2,566	1,229
연구기관	5,917	4,426	1,938	2,488	1,491	761	501	228
대 학	2,443	1,952	1,248	704	491	400	65	26
기 업 체	23,745	14,790	7,538	7,252	8,955	5,981	1,999	975
증가율(%)								
1988	25.0	29.4	33.5	25.1	18.8	35.7	-15.2	20.2
1989	15.2	18.8	15.8	22.1	9.8	16.2	24.7	-46.0
1990	18.7	25.4	22.5	28.4	7.6	0.5	6.6	88.5
연구기관	23.9	24.8	30.0	17.8	21.3	-2.2	59.0	68.6
대 학	6.6	3.7	-6.4	28.0	20.0	36.5	18.8	27.8
기 업 체	18.8	29.1	27.4	23.6	5.0	-0.9	-0.7	103.1
증가율(%)								
1988	100	60.6	32.2	28.4	39.4	26.1	8.2	5.1
1989	100	62.4	32.4	30.0	37.6	26.3	8.9	2.4
1990	100	65.9	33.4	32.5	34.1	22.2	8.0	3.8
연구기관	100	74.8	32.8	42.0	25.2	12.9	8.5	3.9
대 학	100	79.9	51.1	28.8	20.1	16.4	2.7	1.1
기 업 체	100	62.3	31.7	30.5	37.7	25.2	8.4	4.1

사회보장

복지시책 ③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과 특수교육

— 장애인은 직업재활을 위하여 전국의 장애인 재활시설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전자 목공 섬유 인쇄 공예 등 50여종의 장애인 적성직종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에게 직종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장애인과 일반인학생의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유도와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교육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특수학교 1백2개소(특수학급 3천2백48학급)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특수교육기관 운영실태

('91. 4월말 현재)

직종 / 구분	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 (IQ75이하)	지체장애인
학교수	102	12	21	56	13
인 원	20,214	1,432	4,256	12,448	2,078

특히 교육부는 96년까지 19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1천8백30개를 증설하고 특수학교내 1백20개 유치부를 증설, 교육기회 확대 및 장애유아들의 조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환경

환경보전대책과 현황 ⑧

▲ 대기오염 현황

— 91년 강우중의 산성도는 부산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pH 5.4로 나타나 이 지역에서는 약산성을 띤 산성비가 내렸으며 월별로는 오염농도가 높은 12월과 1월에 대체로 산성도가 강하게 조사되었음.

◇ '91 주요도시별 강우산도(降雨酸度)월평균

(단위:pH)

월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1월	5.0	4.2	5.2	6.2	5.3	6.1
2월	5.1	5.3	5.1	6.2	5.6	6.2
3월	5.4	5.1	4.8	5.8	5.7	5.7
4월	5.1	4.9	5.3	6.0	5.5	5.7
5월	5.7	4.9	6.1	5.9	5.6	5.7
6월	6.3	5.3	5.8	—	—	5.7
7월	5.3	5.5	5.7	6.2	5.6	5.6
8월	5.6	5.3	5.6	6.2	5.8	5.7
9월	5.7	5.5	5.5	5.9	5.5	5.7
10월	5.1	—	—	5.8	5.9	5.6
11월	5.2	5.2	5.6	5.7	5.9	5.7
12월	5.1	4.9	5.5	5.6	5.4	5.4
연평균	5.4	5.1	5.5	5.9	5.6	5.7

註: 1) 산성비(pH 5.6이하)
2) "—"는 측정기 정비중이거나 또는 강우량 적어 측정불가

▲ 기업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 90년도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매출액대비율은 89년 1.74%에서 1.72%, 제조업은 89년 2.01%에서 1.96%로 각각 낮아졌음.

사용연구개발비의 매출액 대비율은 높은 업종은 전기·전자기계업종이 4.85%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았으며 측정 및 제어 광학기계업종이 3.52% 순으로 나타났음.

◇ 기업체 사용연구개발비의 매출액대비 국제비교

(단위:%)

구 분	한 국('90)	일 본('89)	영 국('88)	독 일('87)	프랑스('88)
전산업	1.72(1.88)	2.7(2.6)	–	3.8(3.5)	3.6
제조업	1.96(2.07)	3.3(3.2)	4.8(3.2)	4.5(4.2)	–

註) ( )는 기업체 부담연구개발비의 매출액 대비율

◇ 주요선진국의 사용연구개발비의 매출액 대비율이 높은 업종

순위 / 국별	1	2	3	4	5
한국('90)	전기, 전자기기 (4.85)	측정, 제어장비, 광학기기 (3.52)	기술용역업 (2.36)	조립금속제품 (2.14)	운수장비 (2.11)
일본('89)	의 약 품 (7.50)	통신, 전자, 전자계측기 (6.10)	전기기계기구 (5.47)	정밀기계 (5.16)	기타화학 (4.11)
미국('88)	항 공 기 (15.4)	전 자 기 계 (10.2)	통 신 기 계 (9.9)	의 약 품 (9.0)	정밀기계 (7.7)
독일('87)	항 공 기 (27.1)	전 자 기 계 (9.4)	화 학 공 업 (4.6)	정밀, 광학기계(5.7)	차량 (3.9)

註) ( )는 매출액대비율 %

(자료 : 과학기술처)

▲ 기타 주요 오염물질

– 83년 7월부터 NO_2, O_3, HC 및 CO에 대한 환경기준이 추가 설정된 후 전국 31개 도시 78개 측정소(서울시관할 10개소 포함)에서 이를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최근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이산화질소(CO_2), 옥시단트(O_3) 등 일부항목은 오염도가 상승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강화, 지도·단속의 강화와 저공해자동차 개발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기타 주요대기오염물질 오염도

('91, 단위:PPM)

환경기준 / 도시	NO_2	O_3	CO	HC
	0.05	0.02	8	3
서 울	0.033	0.012	2.2	2.8
부 산	0.023	0.014	1.5	2.3
대 구	0.021	0.010	1.8	1.4
광 주	0.013	0.013	1.9	2.6
대 전	0.018	0.009	1.5	–
울 산	0.024	0.015	0.3	–

▲ 대기보전대책

– 대기중의 아황산가스(SO_2)는 연료의 연소와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 난방, 수송 및 발전시설에서의 연료연소에서 발생되며 울산·여천 등의 황산제조 및 비료 제조시설의 산업공정에서 일부가 발생되고 있음.

(자료 : 환경처)

▲ 정부는 과거에도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질적 지원은 미흡했다고 보는데.

– 최근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근본요인중 하나가 중소 전문부품산업의 취약에 있음. 그동안 추진해온 조립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 방식에 의한 성장전략은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우리의 고임금, 인력난이 가중되어 이제 한계에 달했으며 앞으로는 전문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 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없이는 수출증대 및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정부는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을 중소기업지원에 초점을 두어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되는 생산기술개발, 인력난 완화, 자금흐름 개선 등이 모두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임.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시책은.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종전의 달러당 6백원에서 6백50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이번에 무역금융에 한해서 운전자금대출에 대한 제3자 담보제한을 대폭 완화토록 하였음.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금년에 2조원 추가 확대하고 이밖에도 상업어음 재할인기한 연장, 의무대출비율 상향조정, 그리고 국산기계 구입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확대를 통하여 자금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자료 : 경제기획원)

▲ 재가(在家) 장애인 복지사업

– 대부분의 장애인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및 직업훈련서비스를 받도록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 지역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계획기간중 총 14개소)하여 각 지역별로 재가(在家)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중심센터로 활용해 오고 있음.

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 재정립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문화, 다양화로 종래의 수용보호 위주에서 일정기간 재활기능을 습득후 장애인이 정상인과 같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기존 시설의 증축, 시설의 신축, 장비의 보강을 지원하였음.

◇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실적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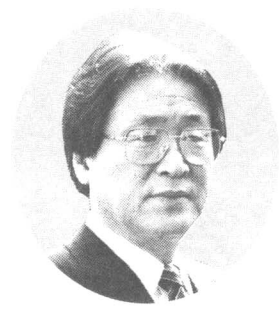
구분 / 연도	사 업 량 (개소)	예 산 (단위:백만원)	비 고
'89	86	14,105	
'90	100	9,306	
'91	67	10,137	보호작업장 제외
계	253	33,548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3백인이상 상시근로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91년 1.0%에서 93년이후는 2.0%로 확대 실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병행추진토록 했음.

(자료 : 보건사회부)

"統一이란 어휘에 낭만은 禁物"

—— 36년간 암약해온 '金洛中 간첩사건'에 온국민 驚愕



吳 在 昊
〈극작가〉

◇국가안전기획부가 간첩 金洛中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권총과 통신기기·공작금·암호문건 등 간첩활동 장비.

前 민중당 공동대표 金洛中 간첩사건이 꽤나 깊은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남북의 만남이 실속이야 있던 없던 나름대로 대화의 심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 터진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또 몇가지 더 있다.

요즘 TV화면에 소련말과 中國말이 英語보다 자주 나타나는 세상이다.

바야흐로 동서남북이 훤하게 열린 상태다.

참 좋은 세상이지만 생각해 보면 허망한 느낌도 든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은 무섭게 변했다.

생전에 바늘구멍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南과 北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까지 발효시켰다.

雙手를 높이 들어 환영한다.

「南北합의서」 무색

그런데 어째서 난데없이 金洛中 간첩사건 같은 것이 터져서 사람의 마음을 구겨놓고 있는 것일까.

金씨가 36년간 고정 지하간첩으로 최장기 간첩활동을 해왔었다는 그 자체가 충격을 준 것일까.

아니면 경제난에 허덕이는 北韓이 그 엄청난 외화난에도 불구하고 金씨에게 거액의 美貨를 공작금으로 주었다는 것이 충격을 주었을까.

여기서 할 말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조금은 감상주의적인 표현이 될 지는 몰라도 이 점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새하얀 백합도 검은 그림자를 던지는 법이다.

다시 바꾸어 표현해 보자.

필자는 1945년을 전후해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소위 南北간의 사상대결을 장장 10년동안 집필한 사람이다.

지금도 중장년의 애청자라면 동아방송의 '특별수사본부'라는 드라마와 필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지금까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기억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명확하다.

그 드라마는 北韓공산당의 생리를 정확하게 묘사했기 때문이다.

결단코 선언하지만 필자의 필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죄송하지만 일부 또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책에서 본 共産主義와 현 北韓사회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와는 생리가 전혀 다르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또 다른 매듭이 분명히 있다.

1945년을 전후해서 南勞黨의 괴수 박헌영이나 김삼룡 등 수많은 인물들이 조선 인민해방을 외치면서 자행했던 수법이 이 사건에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의 수법이 한치 한푼도 변함이 없다.

다만 변했다면 개인의 성향에 따라 공작활동의 방법이 각도를 달리 했다는 것 뿐이다.

가령 예를 들어 박헌영은 김삼룡에게 '인텔리겐차(Intelligentzia=帝政러시아시대의 서구 자유주의자)'는 뺨한대로 다스리라고 했다.

김삼룡이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반문했더니 돈 몇푼, 혹은 술 몇잔이면 소위 知的 노동에 종사하는 지식층 쯤이야 간단없이 다스릴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 결과 세상이 다 아는 '국회 프락치사건'이란 것이 터졌다.

창백한 韓國, 韓國人의 '인텔리겐차'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다.

이번 金씨 간첩사건도 2백10만달러의 활동자금이라면, 36년쯤은 능히 버틸 수 있었다는 시각이 절대로 가능하다.

金씨 사건은 결코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다.

필자는 어쩌다 팔자가 사나와 세계 2차대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여순반란사건'이란 것도 현지에서 직접 체험했고, 恨 많은 6·25동란도 겪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식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만행을 몸으로 체험한 바 있다.

과거만행 잊지 말아야

그러다 보니 南勞黨史에 대해 나름대로 알만큼 알았고, 공산주의자들의 생리란 것도 무던히 많이 폭로했다.

그결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력도 있고, 때로는 시대에 걸맞지 않게 전위적인 발언을 자주 해서 당국의 신세도 진 일이 있다.

또 드라마를 집필할 때, 北韓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도깨비처럼 표현하지 말고 인격을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고 발언해서 혼난 기억도 있고, TV화면에 人共旗를 드러내서 시말서도 썼고 6·25동란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민족의 비극이라고 매스컴에 공언했다가 드라마가 도중하차를 당한 경력도 있다.

그 뿐 아니라 한때는 필자가 쓴 원고를 정보당국에서 사전검열 했던 시절도 있었다.

이런 화려한(?)경력은 나름대로 확신을 심어주었다.

실제로 진짜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생리를 지니고 있다.

이 사실을 두려워 해야한다.

金씨가 진짜 공산주의자라면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약의 생리를 지니고 있다.

또 앞으로 제2, 제3의 金씨 사건이 없으란 법도 없다.

없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야말로 감상주의적인 희망사항이다.

차라리 그런 사건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표현이다.

統一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숙원이다.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으로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또 통일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곤란하다.

지금 통일이 되었다간 더 큰 혼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통일이란 어휘에 낭만은 절대로 금물이다. 잘못하면 안방도 망하고 건넌방도 망한다.

北韓의 현실은 '뜨거운 감자'와도 같다.

감자가 스스로 식어지길 기다리는 인내심이 지금 우리에겐 절실하다.

당장에 지난 해 10월에 金日成이 金씨에게 1백50만 달러를 주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자금에 의해 합법적인 투쟁과 데모같은 비합리적인 투쟁법업이 1945년 그 무렵에도 공공연하게 획책되었던 전형적인 투쟁방법이다.

北의 간첩남파 상존

北韓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변한척 하고 있을 뿐이다.

필자는 통일의 열기속에서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다.

며칠전 술자리에서 제법 뜻있는 사람들이 金씨 사건을 두고 열을 올린 적이 있다.

결론은 지금까지 정보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36년간이나 잠복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반기를 들었다.

간첩은 잡아낼 때 잡아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잡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만약 지금 당장 金씨 같은 간첩을 잡아내라고 하면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사실을 북한의 정보망도 다 알고 있다.

이것이 기기묘묘한 정보 전쟁이다.

불행하게도 그 동안에 몇가지 흠은 있었으나, 정보는 정보대로 평가해야 한다.

정보를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면 손해가 더 크다.

이런 논리는 美國이나 英國 또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속된 말로 '간첩을 기른다'는 표현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한다.

외람된 발언이지만 필자는 정보의 생리를 남달리 깊은 이해심으로 보고 있는 쪽이다.

지금 우리 눈 앞에 진행되고 있는 南北회담에 통일을 망치는 프락치의 입김이 절대로 없으란 법도 없다는 사실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한다.

물이 가득차기 전에 부대자루의 주둥이를 단단히 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물이 가득찬 다음엔 주둥이를 맬 수도 없거니와 애써 받아놓은 물도 아무 소용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

그리고 후회없는 통일을 이룩하자.

北韓의 對南赤化전략 절대不變 反證
經濟難 불구 남파간첩에 巨額공작금

中企 創業절차 대폭 간소화

環境규제등 企業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

정부, 行政쇄신 작업 지속 추진

中小기업의 活力과 경쟁력 提高를 위해 創業절차가 올 하반기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방안에 따르면 현재 市·道지사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변경 ▲ 농지 전용 허가 ▲ 배출시설 설치허가권 등을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재위임, 창업 승인신청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 현행 일괄처리대상에 17개 법률 26개 인·허가 사항이 포함돼 있던 것에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및 신고 ▲ 연도구역내 건축(공작)물 설치허가 ▲ 무연분묘 개장허가 ▲ 개발촉진지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 농지확대 개발고시지역 해제 ▲ 낙농지대 해제 등 7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상수도 취수원 보호구역 상류 10㎞이내에 공장설치를 불허하던 것을 폐수 및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 정부는 행정내부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制度·規制 관행을 과감히 정비개선, 행정쇄신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規制와 간섭이 非能率을 초래하고 우리 경제의 再跳躍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비판과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정부에서는 작년 10월부터 국민불편해소와 기업활력 提高 및 행정내부의 비능률제거에 역점을 두고 각종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制度·規制 및 관행을 과감히 개선·정비하기 위한 '行政刷新'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행정쇄신 효과뚜렷

즉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行政規制緩和委員會'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특히 종래 정부주도에 의한 개혁 추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입장에서 개선대상 사무를 발굴 건의토록 하기 위하여 '行政規制緩和 民間諮問委員會' (위원장·劉彰順 전경련회장)를 限時的으로 운영한바 있다.

이와같이 行政刷新을 총력 추진해온 결과, 1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각종 行政規制의 완화를 비롯, 행정권한의 지방 및 민간이관 등 1천4백여건에 달하는 개선대상 과제를 도출하고 그중의 절반을 이미 개선 조치하였으며, 92년말까지 4백62건을 개선완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우선, 자가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豫備軍·民防衛훈련개선, 여권발급시 소양교육 폐지, 輸出檢査制의 단계적 폐지, 소규모 住宅 건축허가의 신고제 전환 등 그동안 국민 다수가 불편을 감수해 왔거나 이익집단의 반대로 손대지 못했던 제도를 과감히 폐지 또는 개선하였다.

둘째,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 보건·주택·교통 등 국민생활과 공장입지·판매·수출입·금융 등 기업활동과 직결되어 반복 제기된 숙원사항들을 대폭 해결함으로써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입장과 시각차이를 해소하고 신뢰와 協力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부·民間간 이해증진

세째,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특히 中小企業의 행정규제 부담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有資格者 법정의무고용, 산업안전 및 환경규제, 금융차입절차, 공장설립 창업 및 절차와 관련한 종합적인 규제완화 대책을 확정, 추진해오고 있다.

끝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효과 擧揚을 위하여 국민불편 소지가 많은 분야와 기업활동 관련규제를 중점개선 대상분야로 선정하여 규제실태를 계층별로 심층조사하고 被規制者인 기업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附價稅증명원 電算발급등 462件 중점改善

올 下半期 주요행정쇄신 추진과제

◆ **중소기업 창업절차**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관련 인·허가 권한의 위임 확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일괄 처리 범위 확대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10㎞이내 창업제한 완화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인 경우'의 법적용 단일화

◆ **토지·공장설립**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형질 변경허가 기준 개선 △제한정비지역내 가동공장의 일부 개축 허용 △공장부지내 추가건축물의 신증축 규제완화 △공장설립관련 보고의무 완화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서류 간소화

◆ **세무·통관·무역** 세금 전산안내 시스템 개발 △부가가치세 사실증명원의 전산발급 △사업자 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생략 △통관표지 첨부제도 개선 △원산지 표시 면제 품목추가 지정 운영 △보세구역의 물품 취급시간 제한 완화

◆ **자동차·중기·계량기**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사용정지 제도개선 △중기등록번호표 봉인업무 개선 △중기대여업·및 정비업 허가제 개선 △중기형식변경 개선 △중기형식확인검사 개선 △계량기 제작·수리·판매제 개선

▲ **기술용역·정부계약** '기술용역업' 제도개선 △외국기술용역 발주승인제 개선 △소규모 정부 계약절차 간소화

한민족공동체 /고려연방제

알아둡시다

南北韓은 통일추진 방안으로서 각각 韓民族共同體 통일방안과 高麗聯邦制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쌍방의 統一방안은 통일의 개념부터 달리하고 있다. 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은 국가의 원초조직인 민족사회의 통합을 통하여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며 민족의 통합은 남북한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상호 개방과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간의 동질화와 민족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통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고려연방제 방안은 기본적으로 '南韓이 美國의 식민지'라는 관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통일은 南韓을 美國으로부터 해방시켜 민족적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革命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즉 통일은 '과정'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의 차이에서부터 두 방안이 내세운 통일의 원칙과 과정 및 결과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다같이 인정하지만 그 해석은 상이하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외세의 개입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의 의사와 힘에 의해서, 무력사용을 비롯한 모든 제도적·비제도적 폭력을 배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화합과 단결 및 참여가 보장되는 民主的 방법으로 통일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고려연방제 방안은 美軍을 철수하고, 계급혁명을 실현하여 南韓에서 공산주의 합법화와 활동의 자유보장을 통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과도체제를 설정하고 이 과도기간 동안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실현하며,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南北韓이 합의하여 '南北聯合(Korean Commonwealth)'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연방제에서는 통일을 혁명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도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남북연합은 통일의 형태를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정을 제도화한 과도적 통일추진기구인데 반하여 고려연방제는 통일국가의 형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국민대표 기관이 쌍방정부가 통일헌법을 비롯한 통일방안을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고려연방제 방안은 南韓정부의 국민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초, 통일협상은 南北韓 제정당·사회단체가 연석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에서 통일방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

통일국가의 형태로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하나의 민족인 南北韓은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여 단일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데 반하여, 고려연방제 방안은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 형태의 聯邦制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2정부 2체제를 그대로 두고는 하나의 국가를 건설할 수 없으며, 따라서 北韓이 통일을 말하고는 있으나 분단고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자유와 인권의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반하여, 고려연방제는 주체사상으로 일체화된 공산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료 : 통일원 통일정책실]